

# 희망과 용기로 솟구쳐라



‘설맞이 민속놀이’대행이 펼쳐진 광주시립 민속박물관 뜰에서 힘차게 댕기기를 하는 소녀들. <광주일보 자료사진>

## ■ 소설가 한승원은

장흥 출신 소설가 한승원(69·사진)씨는 득량만 등지의 남도 갯가를 성공적으로 소설 공간 속에 옮겨 놓았다는 평을 받고 있다. 한국의 각 지역 특색을 소설로 표현한 서울 염상섭, 경상도 김정환, 충청도 이문구 등과 함께 전라도 문화와 정서를 세밀하게 그려 낸 호남 대표 작가다.

1961년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입학, 김동리에게 지도받았고, 1966년 신아일보 신춘문예에 ‘가슴스런 바다’가 당선돼 문단에 나왔다.

그 뒤 ‘알산도 점점하고’(1977년) ‘해변의 길손’(1987) ‘새끼무당’(1994) ‘해산 가는 길’



(1997) ‘사랑’(1998) ‘꿈’(1998) 등의 단편집과 장편소설을 펴냈다. 전라도 바닷가의 절절한 이야기를 토속어로 풀어내 주목을 받은 작품들이다.

최근에는 장흥 안양면 사촌리 울산마을에 ‘해산도굴’이라 부르는 집을 짓고 머물면서 ‘초의’(2003) ‘추사’(2007) 등을 펴냈다.

한국소설문학상(1980), 대한민국문학상(1982), 한국문학작가상(1983), 현대문학상(1988), 이상문학상(1988) 등을 받았다.

딸인 한강씨도 지난 2005년 ‘몽고반점’으로 제29회 이상문학상을 수상하는 등 대를 이어 소설을 쓰고 있다.

## ▶ 한승원의 ‘에세이 선물’ 11면서 계속

나는 서울에서 17년간 살다가 고향인 장흥 바닷가로 돌아와 살고 있다. 서울살이는 나그네 새의 삶이었다. 이 나뭇가지에 앉아 있다가 저 나뭇가지로 옮겨가고, 또 다시 다른 어떤 나뭇가지로 옮겨가고... 그런 까닭으로 투쟁하듯이 살아야 했고 그 삶은 긴장의 연속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위장병을 심하게 앓았는데, 병원 약 한의 원 약을 먹어보아도 쉬 치유되지 않았다. 그 고통 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고향집의 뒤란 언덕 아래 이끼 낀 천장에서 ‘표통, 표통!’ 떨어지는 수정 같은 물방울들이 고여 있는 웅덩이 물 한 바가지 벌컥벌컥 마시지만 하면 위장병이 대번에 싹 나아버릴 것 같은 생각, 그 생각을 한 날 고향으로 달려가 그 물을 실컷 마시고 또 마시자 내 위장병은 거짓말처럼 차도가 있었다.

왜 사람들은 고향을 찾는가. 설 명절 추석명절에는 왜 전쟁을 치르듯이 고향엘 다녀가는가.

고향은, 사무적이고 각박하고 맵고 추운 타향에서 시달리고 외로워진 영혼을 위안받는 곳이고, 빗바래지고 연약해진 희망을 재충전하거나 건전지처럼 갈아 끼우는 곳이고, 비굴해진 영혼을 당당하게 해주는 곳이고, 닳아진 용기를 재충전하는 곳이다. 절망과 좌절을 벗어나 재도전을 하도록 부추기는 곳이다.

타향이 밝은 낮 동안의 긴장한 채 활동을 하는 시공간이라면, 고향

은 밤처럼 편안하게 휴식할 수 있는 시공간이다. 목구멍을 위하여 피곤하게 노동을 하거나, 나그네처럼 길을 가다가 지치면, 토막잠이라도 자야 한다. 자고 나면 새 활력이 생겨서 또 다시 하던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어린 시절 우리들이 어른들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 어른들은 말했다. “잠자고 나면 나아 것이다. 어서 자거라.” 정말 깊은 잠을 자고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면 씻은 듯이 나아 있었다.

고향은 그러한 깊은 잠 같은 시공간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연어처럼 모천회귀 본능을 가지고 있다. 공처럼 둥근 우리들의 지구가 혼자서 돌면서 태양의 주위를 똑같은 길을 따라 회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는 한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늘 길을 나서지만 다시 그 자리로 되돌아온다. 우리도 큰 세상을 향해 길을 나서곤 하지만 결국은 출발한 그 고향으로 되돌아오곤 한다. 뱀비우스의 피처럼.

최첨단의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고향을 잃어버렸다. 아니 자기들이 자기의 고향을 자기 손으로 파괴해버렸다. 그러므로 그들은 도회에서 사업에 실패하고 파산하면 고아처럼 슬프고 고독하고 불안하지만 돌아가 위안받을 곳이 없고 잃어버린 용기와 희망

을 재충전할 곳이 없다. 그들은 노숙자가 되어 술주정뱅이로서 밤이슬을 맞으며 떠돈다.

고향이 있는 사람은, 늘 달려가서 위안받을 친정이 있는 여인처럼 행복한 존재이다.

우리에게는 가시적인 고향과 비가시적인 고향이 있다. 현대의 도회적인 삶은 그 고향을 허물어 없애버리고 있다. 우리는 그 고향을 없애지 말고 보호하고 새로이 건설하고 단장해야 한다. 고향 마을에 그윽한 숲을 조성해야 하고 맑은 물이 흐르게 하거나 출렁거리게 해야 하고 오염되지 않게 해야 하고 그리고 늘 달려가서 쉬면서 소진된 활력과 희망과 용기를 재충전하곤 해야 한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에게 빚을 지고 있다. 나는 특히 어머니 콤플렉스가 많을 사람이다. 어머니가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하고 명령하면 하지 않고는 못 견디다. 하지 않으면 불효를 저지르는 것 같으므로.

마찬가지로 고향에 빚을 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어머니의 피를 타고났고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났듯 고향의 피와 젖을 먹고 자라난 것이다.

내가 쓴 소설들의 90퍼센트는, 모두 어머니와 고향 하늘과 산하와 바다로부터 받은 것을 운용한 결과물들이다. 어머니에게서 배운

고향은 외로운 영혼 위안 받고  
닳아진 용기를 재충전하며  
좌절 딛고 재도전 다짐하는 곳

속담과 사투리와 할아버지에게서 들은 신화나 전설 이웃집 머슴에게서 들은 옛날이야기, 이웃집 아저씨에게서 들은 유자배기와 관소리 한 대목, 동네 아주머니와 처녀들이 하는 강강술래에서 배운 음율, 동네 어른들이 논 매고 등짐하면서 부른 노래와 막걸리에 취하여 울리던 농악들, 고향 아저씨들이 잡아 온 회를 먹고 얻은 바다에 대한 감수성, 고향 바다의 파도와 물새와 해초에게서 배운 그윽한 정서... 이 모든 것은 내 소설 속에서 화려하게 승화되었는데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내가 얻은 것은 얼마든지 더 있다. 고향 마을 서쪽으로 지는 핏빛 노을 해방 무렵과 6:25 때 죽어간 매형과 남숙과, 의용군에 가서 죽은 아저씨들과 일제 때 징용 징병에 다녀와서 허무술과 더불어 마셔댄 아저씨들에게서도 배웠다.

고향에서 빛을 진 사람들이 어찌 나쁜일까. 그 빛을 평생토록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찌 나쁜일까. 도회에 나가서 사업하고, 명절 때면 천리 밖으로부터 자동차 타고 달려와서 성묘하고 부모 형제와 더불어 즐기고, 자식들 키우고 가르쳐 훌륭한 인재 만들어내는 일들이 다 고향에 진 빛 같은 일 아닌가.

나는 고향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그들이 아니면 고향은 텅텅 비게 되고 모든 학교들은 폐교되고, 동네마다 귀신 나고 도깨비 나게 될 것이다.

고향에 사람들이 많이 살게 해야 하고 고향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여기고 고향을 예쁘게 단장하고 가꾸어나가야 한다. 그것 잘 해내는 일을 우리들의 자존심, 자긍심으로 삼아야 한다.